

전남도청 스쿼시 회장배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

여자부 결승서 대구시청 꺾어 양연수는 개인전 준우승 광주시체육회 남자부 3위

전남도청 스쿼시팀이 회장배 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광주 스쿼시팀은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전남도청 스쿼시팀은 지난 2일 경북 김천에서 막내리 제5회 회장배 전국 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시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박은옥·양연수·이영옥이 출전한 전남도청은 첫 경기인 16강에서 충남을 2-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경남을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 전북을 2-1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대구시의 안은찬·김기람·서효주 조

에 2-1로 승리하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양연수는 개인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쁨이 배가 됐다.

양연수는 16강에서 김가혜(광주시청)와 8강에서 김아현(전북)을 각각 2-0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고 준결승에서 이지현(대전)을 만나 2-1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결승에서 지난 대회 개인전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둔 허민경(경남)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만족했다.

전남도청 김영재 감독은 “무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준비를 많이해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진승우·오민재·오성학이 출전한 광주는 첫 경기인 16강에서 경북을 3-0으로 꺾은 뒤 8강 상대 전남의 길재호, 김동우, 김성태 조를 2-1로 물리치고 4강에 올랐다. 그러나 부산시청에 2-0으로 패하면서 3위에 그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회장배 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전남도청 스쿼시팀. 왼쪽부터 김영재 감독·양연수·박은옥·이영옥. <전남도체육회 제공>

페더러16강 안착 역대 최다 18번째

웬블던 테니스 9번째 우승 도전

로저 페더러(8위·스위스)가 웬블던 테니스 대회(총상금 3501만6000파운드·약 549억7000만원) 남자 단식 16강에 올랐다.

페더러는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웬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남자 단식 3회전에서 캐머런 노리(34위·영국)를 3-1(6-4 6-4 5-7 6-4)로 제압했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웬블던 패권 탈환을 노리는 페더러는 16강에서 로렌초 소네고(27위·이탈리아)와 만난다.

이날 승리로 페더러는 웬블던에 통산 22차례 출전해 18번째 16강에 올랐다.

이는 웬블던 남자 단식 16강 최다 출전 기록이다. 2위는 지미 코너스(은퇴·미국)의 16회다.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전체로는 69번째 단식 16강에 진출했고, 개인 통산 1250승 고지에도 올랐다.

페더러가 올해 우승하면 웬블던 단식 9번째 우승으로 자신이 보유한 최다 기록을 하나 더 늘리게 되고,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횟수도 21회가 되면서 20회인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을 앞설 수 있다.

페더러와 소네고는 2019년 프랑스오픈 1회전에서 한 번 만나 페더러가 3-0(6-2 6-4 6-4)으로 이겼다.

페더러가 8강에 오르면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후베르트 후르카치(18위·폴란드) 경기 승자와 만난다.

페더러는 현재 세계 1위이자 메이저 대회에서 19차례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는 결승에 가야 마주칠 수 있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1위 애슐리 바티(호주)가 카테리나 시니아코바(64위·체코)를 2-0(6-3 7-5)으로 물리쳤다.

바티의 16강 상대는 올해 프랑스오픈 우승자 바르보라 크레이치코바(17위·체코)다.

바티와 크레이치코바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바티와 크레이치코바 경기 승자는 8강에서 아일라 톨리아노비치(75위·호주)-에마 라두카누(338위·영국)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된다. /연합뉴스

삼정초 양궁 김종연, 소년체전에서 광주 첫 금썩다

전교생 64명 미니학교 값진 성과

삼정초 김종연이 종목별 분산개최로 열린 소년체전에서 광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김종연은 지난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2회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겸한 제50회 전국소년체전 양궁대회 30m 경기에서 352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활을 잡은 김종연은 타고난 체력과 집중력으로 광주 남자양궁 꿈나무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대회가 취소되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기량을 입증했다.

김종연의 금메달은 전교생 64명(남 36·여 28)에 불과한 삼정초에서 대회에 출전한 남자초등부 240명의 경쟁을 뚫고 이뤄낸 값진 성과라 그의 의미가 크다.

김추선 삼정초 양궁부 코치는 “(김)종연이는 양

궁을 시작할 때부터 국가대표를 꿈꿀 정도로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며 “훈련에 임하는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집중력, 양궁에 대한 열정이 강한만큼 든든한 지원만 해준다면 한국양궁의 기대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첫 출전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자신감도 커진 만큼 오는 9월 예정된 밀양전국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1993년 개교에 이어 1994년 창단된 삼정초 양궁부는 ‘자·덕·체를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을 기치로 수많은 선수들을 배출하며 광주양궁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삼정초는 올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이라는 악재를 맞기도 했지만 김미옥 교장의 ‘작지만 강한 학교’를 모토로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왼쪽부터 이병선 삼정초 교감, 김미옥 교장, 김추선 코치, 김종연,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김준 감독.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기보배 14일만에 전국대회 두차례 우승

지난달 회장기 대회 이어 전국 양궁대회서도 금메달

광주시청 기보배가 불과 14일만에 전국대회에서 두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2012 런던, 2016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는 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여자일반부 30m 경기에서 357점을 쏘 박진영(전북도청)과 공동 1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21일 예천진호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 패기컵 제38회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 양궁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1위와 1점차인 356점을 기록한 이특영(광주시청)은 임해진(대전시체육회), 김수린(현대모비스), 위나연(LH), 전성은(하이트진로), 박소민(LH)과 공동 3위를 기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일반부 50m 경기에서는 최민선(광주시청)이 342점을 쏘 1위 정다소미(현대백화점·



왼쪽부터 이세현, 김민선, 기보배, 이특영, 최민선.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343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광주여대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

광주여대 김민서는 여대부 30m 경기에서 357점을 쏘 이윤지(한체대·358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열린 여대부 60m경기에서는 341점을 쏘 이세현이 강고은(안동대·344점), 최하늘(목원대·342점)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선우 도쿄올림픽 4개 종목 물살 가른다

자유형 50m도 추가...한국 총 17개 세부종목 출전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8·서울체고·사진)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4개 종목 물살을 가른다. 대한수영연맹은 2020 도쿄 올림픽 경영에서 우리나라가 총 35개의 세부 종목 중 17개에 출전을 확정 지었다고 2일 밝혔다.

연맹이 이날 오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받은 통지문에는 도쿄 올림픽 B 기준기록을 통과한 우리나라 선수 중 도쿄에 초청받은 이는 없었다.

하지만 FINA는 올림픽 A 기준기록을 통과해 자격으로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 중 유효기간 내 FINA 승인대회의 다른 세부 종목에서 한 번이라도 B 기준기록을 통과한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김서영(경북도청)의 경우 여자 접영 100m와 200m, 자유형 100m와 200m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김서영은 주 종목인 개인혼영 200m와 단체전인 계영 800m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이미 자유형 100m·200m와 계영 800m에서 출전권을 딴 황선우는 올림픽 B 기준기록을 통과한 자유형 50m를 추가 신청하기로 해 도쿄에서 총 4개 종목



에 출전하게 됐다.

올림픽에서는 도쿄 대회 때 처음 선보이는 여자 자유형 1.500m에 출전할 한다경(전북체육회)은 자유형 400m와 800m까지 참가하기로 했다.

문승우(전주시청)도 접영 200m 외에 접영 100m까지 출전한다.

이정훈 대표팀 총감독은 “변경된 경기 일정에 맞춰서 모든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발신제한
2관	발신제한
3관	카이트 플레이스 2, 블라이스 스피릿, 웬디 캔저링3: 악마가 시켰다, 레일로드 워
4관	카이트 플레이스 2
5관	캔저링3: 악마가 시켰다
6관	크루엘라
9관	킬러의 보디การ์ด 2, 인 더 하이츠 다크 앤드 워키드
7관	씨네커틀 발신제한
8관	씨네커틀 미드나이트, 빛나는 순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
일시: 2021. 07. 13.(화)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4
차진엽의 지구 모자이크화
일시: 2021. 07. 28.(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